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0호 [루게 제24723호] 주제 103 (2014)년 11월 6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로씨야인사들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스페츠레브시브스카 로씨야주재 우크라이나 특명전대사와 관계부서 일군에게 각각 전달 되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었다

따뜻도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얼마전 귀국에서 진행된 총선거에서 모잠비끄해방전선당이 또다시 승리하고 귀 당이 내세운 립후보가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귀 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 103(2014)년 11월 5일

평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베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나이지리아 자력갱생연구소, 나이지리아 프라노순단년국주최회의사에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로각독보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사진전시회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행도말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주체사상탑》,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베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우리 당의 영결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를 독보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혁명생 오로지 나라의 부강변명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장그려 바치면서 자신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았으며 순간의 휴식도 없이 초강대국행군길을 이어가시다 달려는 열차에서 순직하신 김정일 령도자와 같은 그런 위인은 세상에 없다. 김정일 령도자를 하느님 믿고 살 아온 조선인민의 심장에 그의 영상은 민족의 어버이로,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새겨져있으며 세상사람들도 그것을 공인하고있다. 김정일 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나이지리아 자력갱생연구소는 대령위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독보하고나서 조국통일의 대강을 마련해 주시고 그 실천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나이지리아 프라노순단년국주최 회의사 부기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김정일 령도자께서는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를 펼쳐주시

며, 이께서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한 그 기세로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서도록 정력으로 이끄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말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반드시 실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시에서 회 회고모임, 토론회, 강연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10월 24일과 25일에 진행되었다. 사진전시회장에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강성대국의 불바람》이 상영되었다. 행사에는 방글라데시군정치연구소와 방글라데시주체사상연구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방글라데시군정치연구소 위원장 장영, 자한기르 칸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력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는 정력적인 사상리론

으로 김일성주체사상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 발전시키시기에 인류사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결출한 령도자이다. 이께서는 선군혁명명도로 조선의 정지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면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놓으시었다. 이께서 인민의 행복과 번영,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쌓으신 업적을 조선인민뿐 아니라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남기셨다. 우리는 김정은 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현대생활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것이다. 방글라데시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장영, 장영 후다는 자주시대의 참다운 지도자상으로 공인되고있는 위대한 김일성주체사상과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은 김정은 동지에 의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되었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 따라 자주,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뜻깊이 걸어갈 심념과 의지를 넘쳐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시대 공로자들처럼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자

청천강전역에 보내줄 대상설비생산으로 들끓는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물길공사들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제기일에 완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는 속에 대상설비생산을 맡은 각기 공장, 기업소들에서 새로운 시대 속도, 조선속도장조의 열풍이 세차게 불어치고있다. 골지의 대기계제작기 대인 중기계제작기에서 대인 결심하면 무조건 하고야마는 조선

각기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이 힘있게 표시되고있다. 지난 7월달부터 련합기업소에서는 발전기설 하부구조물공사에 앞세워 타인 안내장치생산을 전부 끝내기 위한 총돌격전이 벌어졌다. 일군들이 한계 생산공정의 말고 현장에 내려가 로동자들의 정신력을 불려일었다. 설계연구소 설계가들이 가공공정을 줄이고 가공속도를 훨씬 높일수 있는 기발한 착상들을 련이 내놓고 현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속에서 중형선반으로 당지를 소재도 척척 가공할수 있는 방도들이 나와 부분품가공

능력은 3배로 뛰어올랐다. 련합기업소아베 대안전기공장, 룡강전동기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번방기와 전류변성기, 전압변성기 등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다. 천리마제련합기업소, 황해제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도 불리한 조건에서도 발전소건축공사와 대상설비생산을 필요요한 각종 치차 등 수십의 주강물생산을 지난 9월달까지 전부 끝내는 자랑스런 위훈을 세웠다. 화력전설련합기업소, 화력전설련합기업소에서 발전소수준 제작이 본격적인 진행되고있으며 수력설비조립사업소의 일

군들과 로동계급도 수문물생성과 조립을 붙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김중련합기업소 관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협동주강물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창조하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일터마다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풍을 일으키며 전야기생산을 필요요한 각종 치차 등 수십의 주강물생산을 지난 9월달까지 전부 끝내는 자랑스런 위훈을 세웠다. 화력전설련합기업소, 화력전설련합기업소에서 발전소수준 제작이 본격적인 진행되고있으며 수력설비조립사업소의 일

군들과 로동계급도 수문물생성과 조립을 붙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김중련합기업소 관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협동주강물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창조하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일터마다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풍을 일으키며 전야기생산을 필요요한 각종 치차 등 수십의 주강물생산을 지난 9월달까지 전부 끝내는 자랑스런 위훈을 세웠다. 화력전설련합기업소, 화력전설련합기업소에서 발전소수준 제작이 본격적인 진행되고있으며 수력설비조립사업소의 일

사랑의 금방석

◇ 위대한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총속에 솟아난 위성과과학자주력지구에 새집들이경사나 난 때로부터 여러날이 흘러갔다. 그러나 새 집의 주인들은 오늘도 꿈만 같은 현실에서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따금씩 꾸러진 살림들과 그흔히 갖추어진 부엌세간들, 침대를 비롯한 고급가구들... 살림의 구성구속에 깃들여있는 정겨운 정이 새겨져있다. 국가과학원 수산과학원 원장 신상일동무는 《과학자들의 존엄이 돈에 의해 통락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하늘같은 그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온 가족이 매일같이 어머니당을 우리러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있다.》고 격정을 터치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과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자들처럼 복받은 사람들, 자본주의 나라 부자들도 부러워하는 《백만장자》들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세력에서 애국자이며 사랑의 금방석의 당당한 주인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과학자들에게는 아까울것이 없습니다.》

오늘 최첨단을 돌파하며 끊임없이 비약해 나가는 우리 조국의 약동하는 기상과 불패의 위용속에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고귀한 피와 땀, 열렬한 애국심이 숨겨져있다. 누가 보건말고, 알아주건말건 특별히 조국을 떠날려는 뿌리가 되고 밀거름이 되어온

그들의 애국헌신의 세계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최익의 시련속에서도 사회주의 신념을 버리지 않은 결결한 혁명가들, 생활상어려움보다 조국의 앞날을 먼저 생각하고 고집이런 과학자들이 이 길을 뜻깊이 걸어온 참된 애국자들이 바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훌륭한 일을 한 사랑을 금방석에 얹어준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과학자들에게 금방석과 같은 집을 주어 거기서 생활하게 하고 또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중엽엔 나날이나 행복한 나날이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과학과 기술로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이련 애국자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이야말로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힘이다. ◇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를 압도하고 적들과의 대결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는 길도 과학기술의 선진적발전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세상에 돌도 없는 사랑의 금방석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최첨단과정을 더욱 드세차게 벌려나가기 한다. 고마운 사회주의 조국을 하루빨리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기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가기 한다. 전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적극 내세우며 그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 평양 3 2 6 전선 공장 에서 -

본사기자 찍음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꽃피워나가자

평양육아원, 애육원 종업원들의 열기모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저한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육아원, 애육원 종업원들의 열기모임이 5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관계부서, 해당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시고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열마진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또다시 찾으시어 원아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거듭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모든 요소요소가 생활환경이자 교육요양장소라고 하시면서 원아들의 보육과 성장발육, 기능개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손색없이 꾸려진데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고 말씀하였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은 선군시

대의 걸작품이라고 대대찬사를 표시하시며 원아들이 궁핍같은 요람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을 누리는 모습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보시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드그치게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잊을수 없다고 격정을 터치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요양, 건물관리와 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며 미흡한 점이 있을새라 원아들에게 친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부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품은 우리 아이들이 안겨살 위대한 태양의 품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사는 한없는 궁지와 우리

당의 송고한 후대만, 미래만을 정히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들의 친부모가 되고 훌륭한 교육자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원아들이 항상 웃음속에서 명랑하게 생활하도록 뜻이 보살펴주며 앞날의 선군조선의 기둥감들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뜨거운 은정이 깃든 건물과 시설, 비품들을 알뜰히 애호관리할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모든 원아들을 혁명의 대를 뜻깊이 이어나갈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훌륭히 키움으로써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세멘트생산 1.3배로 장성 차가 평세멘트공장에서

소성작업의 로동자들이 질 좋은 세멘트프랑크생산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최전선의 보수정비기일을 단축하여 지난 6월 한 달동안에만도 지난 한해동안에 생산한것과 맞먹는 질 좋은 세멘트프랑크를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지금 공장에서는 다음에 쓸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공장에서는 자체 생산기지에서 질 좋은 내화벽돌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전개해나가고있다. 공장일군들의 주도세밀한 생산조직과 지휘, 대중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세멘트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글 및 사진 특약기자 동세웅

공장의 일군들은 석회석수송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수송용 합작업반의 내연기관실물들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있다. 수송이 자 생산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있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수km의 철길구간의 침몰을 새로 교체하고 수km의 토랑을 처리하면서 운백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철길강도를 훨씬 높였다. 기관사들이 량창복, 김인철동무들은 증중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무사고운행으로 매일 석회석수송계획을 120% 넘쳐 수행하고있다.

과학자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는 어머니당의 품

숭고한 사랑으로 마련하신 행복의 보금자리

은 나라가 높고있다. 당의 사랑과 은정속에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최선의 살림집들이 일떠서고 연봉호기수에 한복의 그림과도 같은 과학자휴양소가 찾아온 소식들은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과학자들은 물론 천만군민의 가슴에도 무한한 기쁨이 설레이게 하고있다.

천지개벽을 노래하며 펼쳐진 위성 과학자주택지에는 밤낮도록 불빛이 꺼질 줄 모른다. 대동강기슭에 만경창파를 헤가르는 뚝배기의 모습인양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며 우뚝 솟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도 위대한 당, 위대한 시대에 삼가 인사를 드리는 듯하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 정책이 이 땅에 펼쳐진 위대한 현실은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과학기술의 힘으로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는 내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뚜렷이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며 과학기술사업은 조국의 만민대계를 위한 애국사업입니다.》

수도의 중심부를 감돌아흐르는 보령강변에는 잊지 못할 사연을 전하는 상징이 있다.

미래상징,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전문봉사단원이 이 상징의 이름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어주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어주신 《미래상징》이라는 이름과 친히 보시 주신 상징마크와 간판도안에는 과학기술중시에 애국이 있고 조국의 미래가 있다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이 얼마나 가슴뜨겁게 스며들어있는 것인가.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 나라새신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 귀중한 자금을 과학기술발전엔 돌리셨다고, 이것은 내 나라, 내 조국의 힘을 키워 우리 조국을 세계에 당당히

내세우시려는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가 안아온 대용단이었으며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그 숭고한 애국의 뜻을 그대로 안고 시고 미래상징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몸소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 마련해주신 상징이라고 하시며 이 상징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최대의 경의가 깃들여있었다.

크나큰 비애와 상실의 아픔을 이겨 내셔야 했던 그때에도 상징의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여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대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 조건과 환경을 세계적수준에서 갖춘 휴양소가 완공되면 과학자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그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휴식하며 과학연구사업으로 쌓인 피로를 풀게 된다면 자신께서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일군들에게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과 인재에 대한 올바른 편견과 편견을 가지고 혁명을 해야 나라가 흥난다고 하시면서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연봉호기수휴양소와 위성과학자주택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까지 일떠세우면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을 온 세상에 힘있게 파시하게 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과학기술발전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련관시켜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유구한 역사를 더듬어보면 동방강국의 위용을 떨치던 그 시절엔 세계최초의 발명품들도 자량이 많았다. 하지만 과학기술발전엔 국가적힘을 들이지 않고 세계문명에 담을 쌓은것으로 하여 종당에는 어떤 결과도 차폐되었던가.

당우에는 증기기관차가 달리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울음열로 세월을 보내며 사대를 일삼았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었다. 제국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의 힘을 키우려는 의지가 박약했던 풍토에서는 과학기술이 발전할수 없었다.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만이 진정한 과학기술발전의 넓은 길에 열리고 창조와 혁신의 청신한 기운이 태동하게 된다는것을 우리 조국의 력사는 말해주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국가과학원을 창립해주신것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 시였다.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돌려야 하는 준엄한 시기에 국가과학원이 창립된것은 인류의 과학발전사에 있어보지 못한 하나의 사면이었다. 과학의 최고전당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보검으로 나라와 민족의 힘을 키우시려는 숭고한 애국의지를 안으시고 과학의 최고전당인 우리 민족의 반세기 동안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선견지명과 불멸의 업적을 더욱더 감명깊게 전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대로 우리 나라를 우주에 날아오르는 인공지구 위성처럼 세기의 하늘높이 솟아오르도록 하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큰 힘을 주며 솟아오른 인공지구 위성은 우리의 힘, 우리의 과학기술을 높여주는 높이에서 조국의 국력을 떠받들어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애국업적을 전하고있다.

국력이 약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밀시당하던 우리 민족의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선군조선의 위력을 떨치는 빛나는 오늘에 대한 긍지와 더욱더 광활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새겨

주는 인공지구위성,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애국업적을 전하며 우주에 날아오른 자랑찬 조선의 위성이 안겨주는 뜨거운 격정은 연봉호기수휴양소건설장에 깃들여있는 원수님을 모신듯한 일군들의 가슴에만 솟아올라가지 아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시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엔 그토록 큰 힘을 넣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령도를 매일, 매 시각 충정으로 받들며 천만군민은 애국의 숨결로 높뛰는 그이의 발걸음으로 전진하고 비약하는 조국의 력사를 새겨주시고 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진군길에 들어선 력사적시기에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계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과학기술중시의 새 시대를 펼쳐가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애국의 드림없는 결심과 의지를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리 당의 제일전우, 제일동지로 불러주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셨다.

우리 당의 제일전우, 제일동지, 이 부름을 이 세대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최고의 영예로 간직하고 자랑하며, 기술자들의 가슴은 군기로 부풀고 존엄으로 높여주고있다.

올해의 사회경제 부문에 대한 첫 현지지도의 자욱도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을 찾아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과학기술이 선진수준에 당당히 앞서는 높은 경지에 도달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이 민족의 자랑스러운 자랑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긍지와 존엄을 오늘 절세위원의 숭고한 애국의 지에 떠받들려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품어들어 키워

세계적수준의 휴양소를 과학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안겨주시려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은 연봉호기수휴양소건설장을 찾으며 남긴 간곡한 당부에도 깃들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지난 8월 어느 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봉호기수휴양소건설장을 또다시 찾아주시셨을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발기하고 두차례나 현지지를 돌아보시면서 명당자리에 터전도 잡아주시셨을뿐 아니라 몸소 이듬까지 지어주신 연봉호기수휴양소를 드디어 완공의 날을 가까이하고있었다.

몇달 안되는 짧은 기간에 몰라보게 변모된 건설장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할수 없게 하였다.

지난 5월 연봉호기수휴양소건설장을 찾으며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휴양소를 세상에 몰도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세우는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그이의 믿음을 받아안은 군인건설자들은 연봉호기수휴양소건설에서 세인을 놀라우는 비약의 속도, 조선속도 창조적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기적을 창조하였다.

건설장의 전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절반이라고 벌써 완공된 연봉호기수휴양소의 모습이 한복의 그림처럼 인제온다고 하시며 군인건설자들의 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셨다.

이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종합봉사소, 휴양각 등 여러곳의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대단히 만족해

하시었다.

내용과 형식이 있어서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서고있는 휴양소의 그 어디에서나 과학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을 때때로 절감하는 일군들이었다.

과학자들이 누릴 사회주의부귀영화가 눈앞에 보이는 듯 그토록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0월 10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건설공사를 계획대로 드림없이 밀고나감으로 연봉호기수휴양소를 훌륭히 완공하여 과학자들에게 안겨주시고 다시금 당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굳건한 당부는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우리 원수님의 간곡한 당부, 그것은 꿈만 같던 황홀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우리 과학자들이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신 마음을 안으시고 최상의 휴양소를 건설하시기 위해 여러차례 이곳을 찾으며 정면적인 지도를 주시였을뿐만 아니라 한시도 빠지지 않았던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이 흘러넘치는 당부였다.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의 눈에는 주변의 모든것이 결코 무심히 보이지 않았다.

뜻깊은 당부를 고이 간직하며 연봉호의 물결도 소리를 높이 울려주는 듯이군인건설자들의 나무들도 감격에 설레이는것만 같았다.

그 모든것들은 이곳을 찾는 휴양생들의 심장을 얼마나 세차게 울려줄것인가.

그후 군인건설자들이 받아안은 충동은 새로운 기적창조의 불길로 일어났다.

본사기자

휴양소건설장에 봄기신 당부

크나큰 영광, 뜨거운 은정

한해가 다 저물어가던 주제 101 (2012)년 12월말 인공지구위성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들이 가닿은 곳은 당중앙위원회 청사였다.

모든 승리와 영광, 존엄의 상징으로 높이 솟아 빛나는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마지막 날과 같이 새겨진 붉은 당기가 나부기는 당중앙위원회청사앞에는 활영대가 설치되어있었고 활영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수백명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의 가슴은 뭉클 젖어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로 며칠전에 자기들과 하신 약속을 지켜 불러 주신것이였다.

누구나 심장에 소중히 안고 이 세상 한끝에서도 끝없이 마음달려오며 우리를 때때로 삼가 웃음을 머미는 이곳에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화폭이 펼쳐졌다. 그것은 공화국국민으로서,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받을수 있는 최상의 특전, 특례였다.

지난 1월 어느날 연봉호를 향하여 산골길의 흙먼지를 휘날리우리며 달려오는 승용차가 있었다.

차안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주의깊게 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은 드마베 달리는 승용차를 앞서고있었다.

지난해 몸소 베를 타고 뚫고 뚫어놓은 연봉호기수에 과학자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신데 이어 그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시기 위해 우리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이미전에 보아두신 연봉호기수으로 향하시었던것이다.

현지에서 그이를 맞이한 일군들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고오신 승용차의 색이 황토색으로 변한것이였다.

그 승용차를 바라보는 일군들은 과학자들의 위해 바치시는 그이의 사랑의 세계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이 밝히고 락엽이 흩날리는 길을 예시면서도 불수용 경치가 좋다고, 명당자리라고 말씀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음껏 휴식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환히 웃고계시었다.

지난해 8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살게 될 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시공을 깨끗하게 하였고, 마음에 든다고 평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세대들에 놓아줄 가구들과 세입들이 하는 과학자들에게 안겨줄 텔레비전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전무결한 살림집을 과학자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집들이를 하며 손을 대지 않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줄때 대해서도 강조하시었다.

훌륭한 살림집과 거기에 그른하게 갖추어진 가구들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릿해지는 일군들이었다.

일군들의 속생각을 읽으신듯, 못다 주신 사람이 있으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후대들을 키우고 나라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한생을 바치려는 공원들은 애국자들이라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모든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 주시고 그들에게 온갖 영예를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이 어려와 일군들은 목이 짝 메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본사기자

말만치 되던걸에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지어던 나는 결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살림집이 정말 멋있지, 낮에 볼 때는 대동강에 떠있는 듯해 걸터나 이렇게 밤에 보니 꼭 우주로 올라가는 제단승강기구만.》

《우주행제단승강기구?! 거 참 비유가 그럴듯한데, 동무말대로 한다면 우주여행이 꿈이 아니라는건데.》

《그렇지 않구, 저 궁궐같은 살림집에서 사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의 그 꿈을 현실로 펼쳐놓지 않나 이제 두고 보라구.》

그들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꿈 많은 청년들이라는 느낌과 함께 생각은 저도모르게 깊어졌다.

파연 언제부러웠던가, 우리 인민이 아름다운 꿈을 지니게 된것은.

지난 세기초 우리 나라를 다녔던 유럽의 한 작가는 지계를 무겁게 지고 서있는 소년을 형상으로 꽃피워주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분이

람의 표상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에 주는 우리 인민에 대한 표상은 너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늘 우리 인민은 꿈을 꾸어도 사회주의부귀영화를 꿈꾸는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이 나라 천만부모들의 꿈을

수필

꿈 많은 인민

라 천만자식의 꿈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며 그토록한듯 위수신 절세위원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할수가 없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들을 잘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것은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들이 커 보면 위대한 대원수님들처럼 인민의 꿈을 현실로 꽃피워주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분이

파연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어본 적 있었는가.

언제나 인민의 행복만을 꽃피우시려고 한평생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지향과 리상은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에 그대로 담겨져있다.

자식들의 밝은 태양에 얽은 이 나라 천만부모들의 꿈을

찾아가고 값비싼 예방수약을 하는 사람들이 집집의 문을 두드리는 사랑의 화폭도 펼쳐놓았다.

이런 위대한 천여버이사람이 우리모두를 보살펴주기 겸 쌓인 고난속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들이 부러워할 강성국가로 리상으로 간직하고 어려울수록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들며 일심으로 끈게 뭉쳐 나래를 펼친것 아니던가.

인민의 아름다움은 꿈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선곡목, 선군덕속에서 지켜지고 푸른 하늘의 무게구름처럼 더욱 부풀어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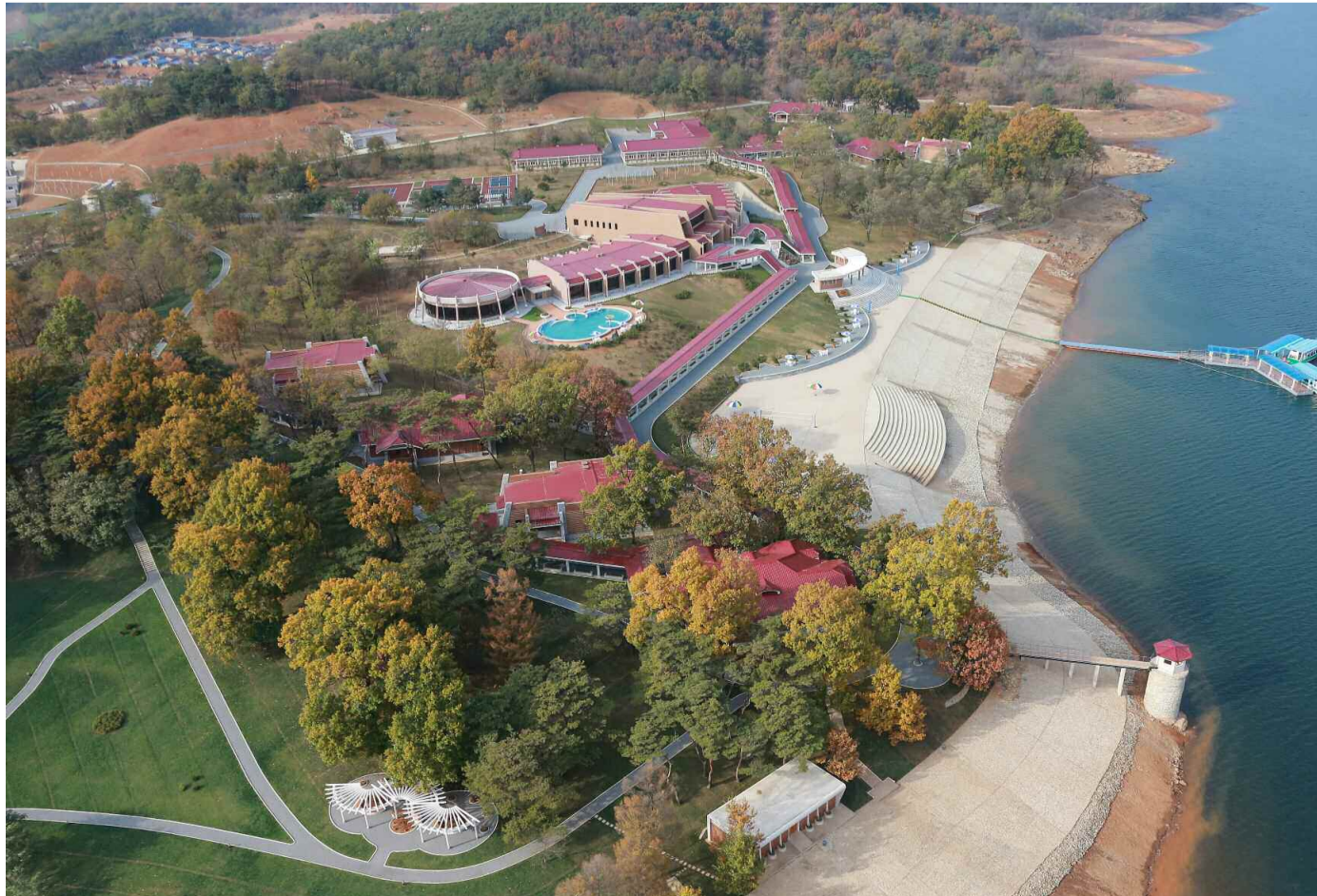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도 담아 천만군민을 따듯이 위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기에 인민의 오랜 꿈은 실현되고 더욱더 아름다운 꿈을 꾸는 인민으로 되었다.

그렇다.

우리 인민은 꿈많은 인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보다 행복할 때를 기다리는 꿈많은 인민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이 펼친 최한한 선경



연 품 과학자 휴양소



위성 과학자 주택 지구

농업의 생명수를 관개용수를 확보하자

올해의 강수량이 관측 이래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백년래의 혹심한 양기물...

경에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협동농장에서 실천을 통하여 우월성이 확증된 앞뒤...>

선차적인 과업은 불원천탐구와 효과적리용

농업성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다 애국의 마음을 안고 이 사업을 벌여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규모의 저수지와 보막이, 저류지, 물주머니 등 각종 물잡이시설을 건설하여 흐르는 물을 모조리 잡는 것과 함께 새로운 물원천을 찾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연흐름식물길공사 완공, 시험통수 진행

명간군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다음해 농사에 이용할 물을 확보할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최근 자연흐름식물길 공사를 완공한데 이어 시험통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군에서 자체로 건설한 이 물길은 부암현의 물을 청룡저수지에 채워넣고 농경지에 대주는 자연흐름식물길공사가 완공됨으로써 고성, 하원, 룡동, 상장, 하령 등 7개 농장수백정보의 부침때에서 다음해 농사를 보다 안정하게 지을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경원지구관광원합기업소 탄광관공장에서

모든력을 총동원하여 전력 동공세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들이대고 있다.

모든력을 총동원하여 전력 동공세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들이대고 있다. 경원지구관광원합기업소 탄광관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공장에서는 탄광들에 필요한 각종 규격의 라선판과 수지판들을 생산하고있다.

물통과능력을 높인 비결

평원군 신승협동농장에서

새로와지는 법이다. 일군들은 단순히 우물이나 파고 출정개수나 더 늘이는 것으로 물문제를 풀것으로 생각하던 편향을 없애고 판개시설들을 개선하고 물길목을 확장할 통이 큰 작전을 펼쳤다. 그들은 판개시설들의 능력을 높이고 물길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섰다.



중요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평원탄광기계공장에서—

당의 두벌농사방침관철에서 창조한 훌륭한 기풍

중화군 삼성협동농장 제5작업반장 김달성 동무의 사업에서

올해에는 대담하게 90여정보의 면적에 여러가지 두벌, 세벌 농사방법을 받아들여 불리한 일기 조건에서도 호형모 수출을 높인 중화군 삼성협동농장 제5작업반이다. 수모없이 큰일을 해냈다. 우리와 만난 많은 사람들은 이 작업반이 당의 두벌농사방침 관철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던 것은 작업반장의 사업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우르모두가 농장원들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바쳐가는 초급일군이 되어 작업반을 앞장서고 있다. 분조장은 그의 의견대로 다른데 보내면 어떨겠는가? 작업반장에게 제1차에 포전을 돌아보고는 생활상대로를 느끼고있는 농장원간격을 찾아야 스스런일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였다.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농장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 알아보고서는 제때에 대책을 세워 주었다.>

경에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협동농장에서 실천을 통하여 우월성이 확증된 앞뒤...>

본사기자 리진명

당의 전투적호소에 결사관철로 화답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기풍

한전에 울리는 신념의 메아리

전력증산으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혁명당원 일군들과 탄부들의 가슴가슴은 날이 갈수록 결사관철의 의지로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화력발전소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소.

언제나 당정책옹호의 기수가 되려는 일군들과 탄부들의 신념의 맹세가 수천천지하마작마다더서 울려퍼지는 메아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결전소태별사회주의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일군들과 탄부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석탄생산을 다그치던 지난 9월 초 어느날 로직장의 한 굴진막장에 뜻하지 않았던 난전이 조성되였다.

굴진도중 막장이 불량되어 작업이 중지되었던 것이다.

모든 탄부들의 눈길이 이곳으로 쏠리고있었다.

《그래도 물러서겠는가 아니면

흥이나갈것인가?)

불락기간을 복귀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격적교육과 결전소태의 대원들은 자제의 힘으로 복귀해낼것을 결의해나섰다.

《동무들, 우리에게 절대로 물러설 권리가 없다. 나를 따라 앞으로!》

소태장의 호소에 대원들이 따라나서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시간이 흘러 모두가 어지간히 지친 몸이었지만 누구 하나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강과 탄광의 일군들도 일편에 뛰어들었다.

온몸을 땀으로 흠뻑 적시면서 한치한치 전진해나가는 굴진공들의 얼굴마다에는 한숨이 그대로 돌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막장을 살려내야 한다는 결사의 의지가 반영되였다.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5일째 되는 날에는 끝내 불락기간이 복귀되고 막장에서는 또다시 착암소리가 기운차게 울려 퍼지게 되었다.

막장을 복귀하자마자 또다시

굴진작업을 다그쳐나가는 굴진공들의 심장마다에 맥박치듯은 파연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화력탄생산을 보장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로 없었던 결사의 각오였다.

탄부들의 위훈을 전하는 이야기들은 청년쟁을 비롯한 다른 쟁들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그 어느 막장에 가보아도 혁명의 년대기마다 석탄증산으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받들어 전세대를처럼 살며 일하려는 일군들과 탄부들의 신념의 맹세가 세차게 고동쳤다.

하루일을 두루, 세분씩 하기 전에는 일터를 뜨지 않는다는 탄동맹의 정풍을, 리학동무들을 비롯한 혁명당원 탄부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미려운것인가.

그들은 외침처럼, 동발들을 자레로 해결하면서 하루계획을 120%이상으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그 어떤 난관에서도 주저할줄 몰랐다.

탄동맹의 굴진막장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지난 9월 어느날 막장을 울려 퍼지던 동음의 웃음이 뜻밖의

고장으로 갑자기 멎게 되었다.

순간 막장은 숨을 죽인듯 고요하였다. 이때 최희철동무의 목소리가 막장을 울렸다.

《우리의 신념이 고동치는 한 절대로 굴진을 멈출수 없다.》

그리고는 향상에 무엇인가 찾아 드는것이였다. 함피와 장대였다.

김철혁동무를 비롯한 굴진공들이 호응하며 떠나갔다.

맹세는 말로써만 다지는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지켜야 한다는 철칙의 신념, 한숨이 열조각, 백조각이 난다 해도 석탄생산을 한시도 중단할수 없다는 결사의 의지를 탄부들이 이끄는 로직장의 김주동무와 총비경의 김정신동무...

성껏 마련한 후방물자를 안고 막장을 찾은 김경숙, 송금실, 함희숙, 박명찬동무들은 탄부들을 위문함으로써 로직장의 김주동무와 총비경의 김정신동무...

성껏 마련한 후방물자를 안고 막장을 찾은 김경숙, 송금실, 함희숙, 박명찬동무들은 탄부들을 위문함으로써 로직장의 김주동무와 총비경의 김정신동무...

탄부들의 안해들도 그 길을 걷고있었다. 이렇게 마련한 석탄이 화력발전소로 향할 때 이들의 가슴은 로동의 보람과 긍지로 한껏 부풀어오르곤 하였다.

《다음과대를 위하여!》라는 구호에 못나간 감동은 이야기로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은 갱이 화폭한 집안이 되어 석탄생산의 앞장에서 이듬떨치는 중앙갱의 탄부들, 갱의 설비들을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도록 탄부들을 이끄는 로직장의 김주동무와 총비경의 김정신동무...

성껏 마련한 후방물자를 안고 막장을 찾은 김경숙, 송금실, 함희숙, 박명찬동무들은 탄부들을 위문함으로써 로직장의 김주동무와 총비경의 김정신동무...

성껏 마련한 후방물자를 안고 막장을 찾은 김경숙, 송금실, 함희숙, 박명찬동무들은 탄부들을 위문함으로써 로직장의 김주동무와 총비경의 김정신동무...

날마다 꽃피는 자락

아름다와지는 관광지구

관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김경일에게 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일터와 마을을 선진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훌륭히 꾸려가고있다.

관광일군들과 탄부들은 새 세기에 들어와 현대적 맛이 나게 개편한 관광행정청사주변지구를 시원스럽게 정리하고 심은 새 품종의 잔디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정성다해 관리하고있다.

탄부들과 가족들은 일터와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갈 열의를 안고 탄광주내 중심도로와 살림집구획 사이를 따라 조경기와의 씨를 울러리며 구석이 맞게 만들고 돌들을 일대지게 쌓은 물도랑을 시원스럽게 쌓았으며 가로수들을 정히 심어 관광마을의 면모를 보다 이채롭게 하고 탄정의 풍치를 한층 돋구었다.

관광일군들과 지방부문의 종업원들은 탄부정당성과 로동자합작, 유치원건물을 사담한 색깔의 의상재들로 새롭게 단장하고 관광주내

를 공헌처럼 꾸려놓았다.

특히 김경일, 원정남동무를 비롯한 5명과 2개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미 있던 건물들을 대담하게 들어내고 그 자리에 정신이 번쩍 드는 멋이 나는 건물들을 짓고 주변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었으며 체육기재들도 설치하였다.

관광마을의 탄부안해들도 모두가 떨쳐나 살림집들을 활하게, 번듯하게 꾸리고 애써 심은 잔디와 나무들을 정성다해 가꾸고 있다.

사랑과 존경받는 탄부안해들

그들은 혁신자로 이름날리던 처녀시절의 그대처럼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알뜰히 관리하면서 신임전공들을 활하게 매 설비들의 특성과 그에 맞는 운전요령과 고장치방법들을 차근차근 배워주면서 설비가장들을 종전보다 훨씬 높여 1개의 굴진과 석탄생산실적들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이 우리를 지켜본다

전력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리는 전력생산자전투에는 동맹양화력발전소 열설비보수직장 로동계급도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 일어나 불들을 가지지 않아서 무엇이 해내고야마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열마전 직장에서 2호보이라대보수전투과제가 맡겨졌을 때였다. 직장로동계급의 어깨는 무거웠다.

2호보이라의 넓은 공기에 열기를 교체하고 미분 화제를 보충해야 하는 작업은 종전같은 40일은 걸려야 하는 방대한 공사과제였었다.

그러나 열설비보수직장 로동계급의 랑심은 그것을 허용할수가 없었다.

(당에서 더 많은 전력생산을 호소하고있는데 보수가일을 하려도 더 만족하여야 한다.)

그들이 40일이 아니라 단 20일만에 보수전투를 끝내겠다고 결기해나섰을 때 머리를 기웃거리며 췌 해낼수 있었는가

동맹양화력발전소 열설비보수직장 로동계급

의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보수가일을 단속하는 것으로 전력증산에 이바지하려는 열설비보수직장 로동계급의 신념은 확고부동하였다.

《당에서 더 많은 전력생산을 바라고있는 때에 우리가 서야 할 위치는 전진하는 대오의 맨 앞자리입니다.》

그때 그들은 막아서며 남편직 발판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부직장장 박철룡, 연공작업반장 김경호, 제반작업반장 김철철동무들을 비롯한 직장의 초급일군들이었다.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라고 우리 초급일군들이 있는것입니다. 동무들, 조국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오늘도 투쟁에서 자랑한 승리자가 됩시다.》

부직장장 박철룡동무의 이런 뜨거운 호소는 대오의 투쟁열의에 불을 붙여주었다.

직장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기에 열기체 및 조립전투는 10일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끝나게 되었다.

그러하여 2호보이라대보수전투를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 나날이 높아지는 성과에 고무된 종업원들 누구나 혁신자의 자랑을 안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조국이 우리를 지켜본다. 나를 따라 앞으로!》

이런 신념을 지닌 열설비보수직장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기에 열기체 및 조립전투는 10일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끝나게 되었다.

그러하여 2호보이라대보수전투를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 나날이 높아지는 성과에 고무된 종업원들 누구나 혁신자의 자랑을 안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조국이 우리를 지켜본다. 나를 따라 앞으로!》

이런 신념을 지닌 열설비보수직장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기에 열기체 및 조립전투는 10일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끝나게 되었다.

그러하여 2호보이라대보수전투를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 나날이 높아지는 성과에 고무된 종업원들 누구나 혁신자의 자랑을 안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조국이 우리를 지켜본다. 나를 따라 앞으로!》

철길관리를 책임적으로

신인주시 남하동의 일군들과 주민들이 철길관리에서 전국 최고의 기록을 세우고 이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정명화, 김광철동무를 비롯한 동일군들은 주민들속에 나리의 귀중한 재부인 철도를 사랑하는것을 공민의 응당한 본분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주면서 철길관리에 모두가 헌신감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착사업을 짜고두고 진행해나가고있다.

일군들과 주민들은 철길관리는 한시도 중단할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매일 정성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리옥영, 김순희, 고정순동무

화력탄을 싣고 전속으로

서평양기관차대 평천화력대대에서

신입기관사들과 기관사들에게 대한 이야기로 인상적이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펼쳐나선 오늘의 전투에서 신입기관사라고 하여 뒤처지지 않게 하는것이 이번 생각으로 실력경쟁을 벌리는 신입기관사들과 기관사들의 열의였다.

언젠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긴장한 수송일군들을 마친 승무원들이 기관차에 대한 정비와 고장수리를 하도록 책임지기로 하였다. 고장수리를 하도록 책임지기로 하였다. 고장수리를 하도록 책임지기로 하였다.

《부두막의 소금도 가마속에

로동이 기쁘고 노래!

일터에 나서면 착각 돌아가는 직기소리가 가락맞게 울려와 마을을 즐겁게 해주곤 함속에 들어가면 포근한 보금자리에서 오라 만개하는 김경숙 열설비보수직장의 로동계급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고자 곧게 굳게 마음지어 하루하루, 분분초초를 헌신과 창조로 이어온 년간 계획원수님의 열골마디엔 웃음 가득, 가슴아닌 쾌대발 가득... 그러나 어찌 이들의 로동이 기쁘고 노래!

블과 노래로 되지 않을수 있으랴. 행복이 넘칠수록 보답의 열정 높아진다.

온 직장, 온 공장이 년간계획원수님의 영예를 지닐 그날이 멀지 않았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학락

안과분야에서 첨단기술 개척하기까지

원장 류은희동무와 의료일군들

이와 함께 병원에서는 의료일군들의 열의와 헌신에 힘입어 비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로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냈었다.

병원에서는 이를 위해 20대, 30대의 세 세대의 의료일군들로 구성된 초지향학과 유려제막수술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데 대한 과제를 주고 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유려제막수술은 사실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들의 혈육들중 그 누가 첨단수술을 요구하는 눈병에 걸려 안과까지 호소하는 경우 후에 보자고 말할수 있겠는가?)

원장은 그날의 협의회를 마치고 의료일군들에게 있어서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의 높이가 실력의 높이로 되는것이 아니라 실력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지금껏 병원의 의료일군들에게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에 앞서 인간사랑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자신을 성찰하였다. 당시 2010년 여름이었다. ...

안과분야에서 첨단기술 개척하기까지

원장 류은희동무와 의료일군들

이와 함께 병원에서는 의료일군들의 열의와 헌신에 힘입어 비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로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냈었다.

병원에서는 이를 위해 20대, 30대의 세 세대의 의료일군들로 구성된 초지향학과 유려제막수술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데 대한 과제를 주고 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유려제막수술은 사실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들의 혈육들중 그 누가 첨단수술을 요구하는 눈병에 걸려 안과까지 호소하는 경우 후에 보자고 말할수 있겠는가?)

원장은 그날의 협의회를 마치고 의료일군들에게 있어서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의 높이가 실력의 높이로 되는것이 아니라 실력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지금껏 병원의 의료일군들에게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에 앞서 인간사랑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자신을 성찰하였다. 당시 2010년 여름이었다. ...

안과분야에서 첨단기술 개척하기까지

원장 류은희동무와 의료일군들

이와 함께 병원에서는 의료일군들의 열의와 헌신에 힘입어 비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로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냈었다.

병원에서는 이를 위해 20대, 30대의 세 세대의 의료일군들로 구성된 초지향학과 유려제막수술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데 대한 과제를 주고 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유려제막수술은 사실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들의 혈육들중 그 누가 첨단수술을 요구하는 눈병에 걸려 안과까지 호소하는 경우 후에 보자고 말할수 있겠는가?)

원장은 그날의 협의회를 마치고 의료일군들에게 있어서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의 높이가 실력의 높이로 되는것이 아니라 실력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지금껏 병원의 의료일군들에게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에 앞서 인간사랑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자신을 성찰하였다. 당시 2010년 여름이었다. ...

말리대통령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라 말리 공화국 대통령에게 김준갑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0월 24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성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라 대통령께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 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말리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형제적조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명하고도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축원한다.

말리와 조선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말

말리대통령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라 말리 공화국 대통령에게 김준갑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0월 24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성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라 대통령께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 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말리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형제적조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명하고도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축원한다.

말리와 조선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말

말리대통령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라 말리 공화국 대통령에게 김준갑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0월 24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성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라 대통령께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 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말리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형제적조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명하고도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축원한다.

말리와 조선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말

말리대통령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라 말리 공화국 대통령에게 김준갑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0월 24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성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라 대통령께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 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말리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형제적조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명하고도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축원한다.

말리와 조선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말

말리대통령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라 말리 공화국 대통령에게 김준갑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0월 24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성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라 대통령께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 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말리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형제적조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명하고도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축원한다.

말리와 조선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말

말리대통령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라 말리 공화국 대통령에게 김준갑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0월 24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성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라 대통령께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 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말리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형제적조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명하고도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축원한다.

말리와 조선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말

말리대통령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라 말리 공화국 대통령에게 김준갑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0월 24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성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라 대통령께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 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말리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형제적조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명하고도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축원한다.

말리와 조선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말

말리대통령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라 말리 공화국 대통령에게 김준갑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0월 24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성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라 대통령께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 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말리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형제적조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명하고도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축원한다.

말리와 조선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말

